

“장애인AG 후원, 블랙야크의 또다른 도전”

-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인천장애인AG 30억원 물품 협찬

큰 주목받지 못하는 장애인대회 후원
도쿄 패럴림픽 앞둔 日 취재진도 관심

강회장 “아웃도어 브랜드 편견에 도전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을 돕고 싶었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꿈과 희망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아웃도어 업체 블랙야크의 강태선(65)
회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지난 24일 폐막한 2014인천장
애인아시아게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
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는 대회의
경기뿐 아니라 조직위원회 등 운영지원 부
분까지 취재하기 위해 인천에 취재진을 파
견했다. NHK 취재진은 그 중에서도 조직
위원회를 공식후원하고 있는 블랙야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가산동 블랙야크
본사로 달려가 강태선 회장과 그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브랜드 홍보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는 인지도가 높고 규모가 큰 행사에 눈을
돌리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또
선수단과 관련된 후원이 훨씬 큰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야크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장애인아시아
게임 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한 점에 대해 N
HK 취재진은 주목했다.

●블랙야크, 30억원 후원… ‘아웃도어 브랜드 로서 새로운 도전’

강태선 회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
느 기업이 장애인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스폰서로 나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
치게 경제적인 부분을 내세우고, 상업성으
로 이어지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스포
츠 대회만큼은 진짜 ‘스포츠다운 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후원을 결정했



5월2일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왼쪽)과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김성일 조직위원장이 후원협약을 맺은 후 악수하고 있다. 강 회장은 블랙야크의 후원이 “정상의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블랙야크는 대회 참가자 6000여명을 위해 30억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다. 사진제공 | 블랙야크

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블랙야크가 품고 있는 정
신과 비전 중에는 나누며 함께 공존하는 마
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가 그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꿈과 희망에
도전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블랙야크와 함께 ‘해냈다’는 마음
을 갖는다면 그 어떤 일보다 뜻 깊고 아름
다운 결과일 것이다.”

블랙야크는 18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인천에서 열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로는 드물게 게임 스폰
서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블랙야크는 이
번 대회를 위해 약 30억원 상당의 현물을
협찬했다. 조직위원회 의류부문 공식스폰

서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블랙야크는 조직
위원회 공식행사와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 회장은 “먼저 경기를 통해 기록을 경
신하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발전을 이루고 난 후 대회를 통한
산업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
가 진짜 스포츠, 진정한 챔피언 등 꿈과 희
망이 살아있는 대회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이번 후원은 스포츠마
케팅 혹은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국내 정상
의 아웃도어 기업으로서의 블랙야크에게
또 다른 도전의 의미였다”라며 “이런 대회
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브랜드들의 장이었
다. 블랙야크의 후원참여는 이번 기회를 통

해 아웃도어 브랜드가 일종의 편견에 도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야크는 실제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는 드물게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프로야구단 SK와이언스를 공식후원
하고 있으며, 블랙야크 레이싱팀을 운영하
고 있다. 세보레 레이싱팀과 스카이다이빙
국가대표인 루키(LUEKY)팀도 후원한다.

한편 NHK 방송은 23일 인천장애인아시
아게임 폐막식 직후 일본 현지에서 이번 대
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대회 준비
와 운영 부분에서 블랙야크의 후원과 관련
된 내용 및 강태선 회장의 인터뷰를 상세하
게 보도하며 이번 후원이 갖는 의미와 패러
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배워야 할 점
들을 언급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휘팩이 부른다.’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 파크가 11월 개장을 앞두고 시즈권 1차 판매를 시작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스키와 보드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 파크는 국제수준의 슬로프 시설을 자랑한다. 사진제공 | 휘닉스파크

휘팩 시즈권 ‘농치면 후회’

평창 휘닉스파크, 11월 초 개장 목표로 분주
시즈권 구매 시 셔틀버스 무료 이용 등 혜택

강원도의 날씨가 최근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스키어들
에게 ‘휘팩’이란 애칭으로 친숙한 평창의 휘닉스 파크가
11월 초 개장을 목표로 분주하다. 휘닉스 파크는 2018 평
창동계올림픽의 스키와 보드 10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이
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인 만큼 슬로프 시설이 국제
수준을 자랑한다.

개장을 앞두고 휘닉스 파크는 14/15 시즈권 1차 판매를
시작했다. 1차 판매에 들어간 시즈권은 ‘MAD(Mania An
nual Discount) for 휘팩’, ‘휘팩매니아’, ‘싱글’, ‘휘팩곰
나무’, ‘커피’, ‘패밀리3’, ‘패밀리4’, ‘패밀리5’ 등 총 9종이
다. 동계스포츠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즌부터 내놓
은 ‘휘팩 꿈나무권’(만 18세 이하, 1996년 1월1일 이후 출
생)도 함께 판매한다.

시즈권을 구매하면 겨울시즌 셔틀버스 무료이용, 스키
·스노보드 무료 레벨레스트 및 원포인트 교정, 객실 할인,
블루캐니언 스파와 부대시설 할인, 리프트·렌탈, 스키·보
드 강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에는 성수기 스키장의 고민인 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자출입체계(RFID)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개장 스무 번째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스키를 배울 수 있
어 인기가 높은 ‘어린이 스키학교’는 전용 슬로프를 조성
해 운영한다. 만 4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인 휘닉스 파크의
‘어린이 스키학교’는 축구장 크기의 연습장에 전용 무빙
워크와 어린이 스키학교 전용 장비대여 및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스키장의 최근 트렌드인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을 강화해 따뜻한 온수 유수품을 갖춘 지중해풍
워터파크 블루캐니언에서 물놀이와 스파를 즐길 수 있
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투어익스프레스, 몰디브 리조트 사전 예약 할인

S.M.C&C 투어익스프레스는 2015년 3월에서 7월 사이
에 몰디브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전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
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5개월 전 사전 예약 할인’ 혹
은 ‘사전 예약 할인’ 문구가 들어간 상품을 예약한 히니문
및 여행객이 대상이다. 조기예약 고객에게는 리조트 할인
과 면세점 선불카드 5만원 또는 스노클링 장비 2인 세트를
제공한다. 렉스, 지탈히, 이투푸시, 타지엑조티카, 벨라사
루, 바로스 등의 몰디브 리조트를 사전 예약한 고객도 할
인 서비스와 스노클링 장비 무료, 증식 무료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 새로운 책

만드시 알아야 할 역사상식 500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휴먼카인드북스 편집부 저 | 휴먼카인
드북스)

갈수록 퇴보하는 성인들의 한국사
상식 수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 나왔
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
다’는 역사를 지겹고 따분하게만 생각
하는 독자들을 위해 만드시 알아야 할 역사상식을 500개
의 키워드로 쉽게 정리한 책이다.

휴먼카인드북스 팀은 ‘하향평준화’ 되어가는 성인들의
한국사 상식수준의 원인을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 환
경과 정규교육 과정 이후 역사에 대한 관심의 부재 등에서
찾고 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에 대한 성
찰이 필수적이며, 아이들을 미래로 이끌어줄 어른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꼬집는다.

이에 ‘역사는 곧 우리의 뿌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신
석기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주요 사건,
인물 등을 중심으로 키워드 500개를 선정했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 상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
기업, 대기업 채용 준비에 필수적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역사 안내서다.

양형모 기자



20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육상 남자400m T54 결승전에서 역주하고 있는 한국대표 이기학. 뉴스시스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음악극 ‘두결한장’

동성애자 감독이 풀어낸 ‘리얼 게이 라이프’

영화 원작자 김조광수 감독이 진두지휘
성 소수자의 삶 유쾌하고 리얼하게 다뤄
게이들로 구성된 ‘G-보이스 공연’ 압권

성 소수자들의 삶을 유쾌하면서도 리얼하
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연극과 뮤지
컬의 경계선 상에 놓인 ‘음악극’을 표방하고
있다.

‘두결한장’은 2012년 개봉한 김조광수 감
독의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이 원작이다. 김조광수 감독이 이 작품의 총
감독을 맡았다.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겪는 사랑
이야기다. 한 사랑은 결실을 맺지만, 또 다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 ‘결혼식’과 ‘장례식’
으로 대비된다.

요즘 공연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동성애
코드의 작품이다. 동성애 코드의 작품은 대부
분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들이 등장하지만 ‘두

결한장’은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의 삶도
다룬다.

코믹하게 이야기를 풀어 가지만 상당히 현
실적이다. 예를 들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박
을 탄다’와 ‘우정박’, 커밍아웃한 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우팅
(outing)’과 같은 동성애자들만의 속어가 쏙
아져 나온다.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이야기’라는
홍보문구가 눈에 띈다. 사실은 ‘평범한 사랑’
을 갈구하지만 오만가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
해 ‘평범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두결한장’은 성 소수자들의 삶과 사랑의
방식을 엿보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나’에 대해 한번쯤 돌아보
게 만드는 작품이다.

민수와 티나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신파로
꾼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마지막 티나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우정박’ 운운하며 키



게이들의 아지트인 레인보우바에 모여 든 G-보이스 멤버들. ‘두결한장’은 흥행에 성공한 독립영화를 원작으로 한 음악극이다. 성 소수자들의 진솔한 삶을 유쾌하게 풀어내 공연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제공 | (주)대영문화공장·프로젝트메이저

득대는 장면은 눈이 아니라 마음에 먼저 걸린
다.

게이들로 구성된 G-보이스의 공연장면은
꽤 흥이 난다. 주인공 티나(강정우 분)의 노래
와 춤도 근사하지만 ‘왕언니’ 역 김대중의 춤
에도 눈길을 줄 것. ‘두결한장’을 통해 자칭
‘댄싱머신’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댄스다.

“진짜 사랑은 두려운 것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갖게 해준다가네. 내는 진짜 사랑 안
할라고.” 한 남자(민수)를 사랑하다 죽음을
맞는 티나의 대사다.

사랑은 편견을 딛고, 두려움을 넘는다. 누
구라도 ‘진짜 사랑’을 막을 권리는 없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